

내한 선교 140주년, 광복 80주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일제강점기, 복음으로 두 나라의 가교가 된 선교사들이 전하는 소명의 가치

잊혀진 선교사들의 위대한 여정, 믿을 수 없는 실화

한국과 일본에서 모두 잊혀진 선교사들을 복원하는 2년간의 기록

천만 배우 하정우 내레이션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에 이은 하정우와의 두 번째 만남



CGN “세상의 방법과 다른 선교미디어”

CGN은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에 맞서 싸웠던 것처럼 ‘복음’과 ‘용서’, ‘사랑’을 담은 콘텐츠를 가지고 세상의 한복판으로 들어갑니다. CGN 20주년 특집 다큐 영화 〈무명 無名〉이 더 많은 사람을 만나 세상 가운데 온전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문의전화 02-796-2243 | 후원계좌 하나은행 573-910002-67804

예금주 : (재)온누리선교재단



커넥트픽처스 “영혼을 깨우고 생명을 살리는 콘텐츠를 세상에 전합니다”

커넥트픽처스는 하나님의 마음과 복음의 메시지를 담은 탁월한 작품을 통해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고 위로하며 세상의 무너진 곳을 회복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영화사입니다.

Contact 남기웅 대표 010-8895-4696 connectpictures365@gmail.com

단체 대관 특별 혜택

전국 롯데시네마에서 영화와 함께 드리는 예배
정가 대비 저렴한 티켓 가격 등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문의 02-3275-9303~4



나는
조선을 사랑하는
일본인 선교사입니다

무명
無名

6월 25일 롯데시네마 단독 개봉

제작 CGN 배급 커넥트픽처스 내레이션 하정우 12세 이상 관람가

영화 무명

검색

검색창에 [영화 무명]을 검색하세요.

“우리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일본을 미워한다.
이토 히로부미의 일본을 미워한다.
그러나 이름 없는 당신의 일본은 사랑한다”

1896년, 노리마츠는 조선에서 온 남자로부터
조선의 국모가 일본인에게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는다.
일본인으로서의 죄책감을 가진 그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오직 복음을 들고, 암흑과 같은 시기를 보내는 조선 땅으로 향한다.
그로부터 수년 후, 노리마츠의 정신을 잇고자 하는 또 한 명의 일본인 오다가
여전히 예수가 필요한 곳 조선으로 향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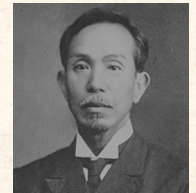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삶으로 복음을 전했다
우리가 잊었던 무명(無名)의 일본인 선교사들
예수의 사랑만 남긴 그들의 이야기를 만나다!



“저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조선인들에게
가고 싶습니다”

일본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

노리마츠 마사야스 乘松雅休 (1863-19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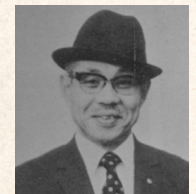
사무라이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안정적인 관직과 보장된 미래가 있었지만 우연히 알게 된
예수의 이야기가 그의 삶을 뒤흔든다. 전도자의 삶을 살던 중 고통 가운데 놓인 조선의 현실을
듣고 '하나님'이란 한 마디 조선말을 배워 조선으로 향한다. 가난하고 핍박받는 조선인들의
친구가 되어 수원 최초의 교회(현 수원동신교회)를 세운다.



“신사참배가 종교행위가 아닌 국민의례라는
소리는 거짓말입니다!”

‘전영복’으로 불린 한복 입은 일본인

오다 나라지 織田櫓次 (1908-1980)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승려의 길을 걷던 중 기독교의 ‘구원’을 접한다. 풀리지 않던 영혼 갈증에
대한 해답을 얻은 그는 조선으로 가라는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 조선인에게 조선말로 복음을
전하고, 수천 명이 모인 평양 숭실대학교 강당에서는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말을 용감히 외친다.